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3

2025년 3월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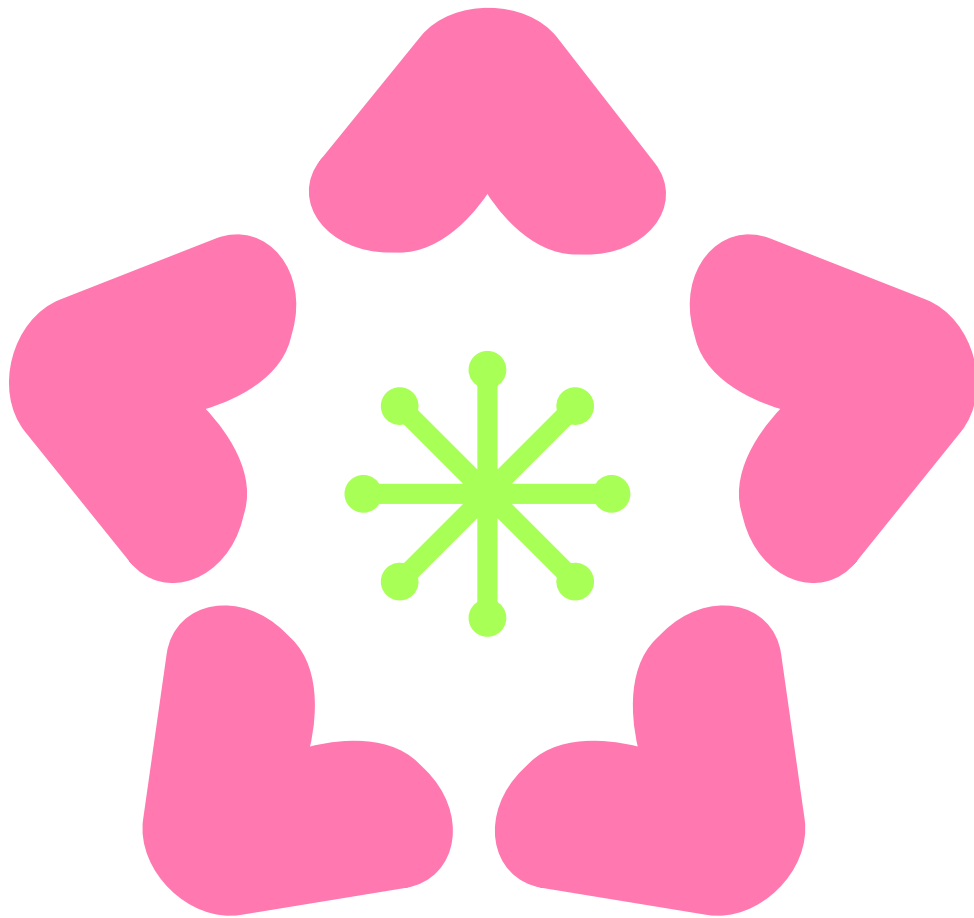
RESOURCE

TRAVEL

NEWS&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3
2025년 3월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CONTENTS

목차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01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섬발전촉진법	3p
02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작은 모래가 가져온 큰 선물, '새옹지마' : 김준 남	4p
03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임자대교 일출을 따라 흥매화가 피어나는 섬으로	10p
04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아따! 이번 달 임자도는 대파로 바빴당께~	12p
05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변을 달리는 말,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 : 고성호 님 지역 공동체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힘 : 정창일 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사람, 임자도의 이야기꾼 : 최강 님	14p
06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신안 임자도에서 키워져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	26p
07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임자도 투어가이드 임자대교를 건너 예술과 자연을 만나는 길	30p
08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32p

도움 주신 분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 고성호 임자해변승마공원 원장
- 최강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 정창일 임자만났네 협동조합 대표
- 임자면 총무과 백두산 주무관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전화 061-286-6764

이메일 fun1015@korea.kr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소식이 궁금하다면?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 정태균, 김신연, 김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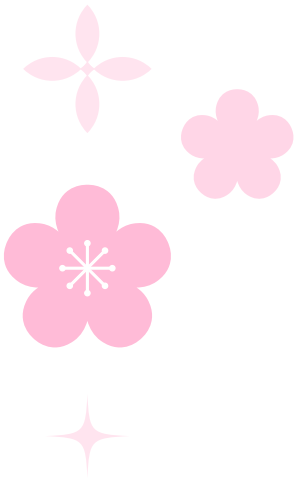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시옷'이 궁금하다면?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섬발전촉진법



섬 단어 사전 ●● 섬발전촉진법



**섬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다.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섬인가? 맞다.
다리 아래로 물길이 열려있어 섬이다.**

우리나라 섬 정책의 상위법은「섬발전촉진법」이며 유인도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법령에서 정한 섬을 대상으로 섬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해 섬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제주도 본섬과 다리로 연결된 후 10년이 경과된 섬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 섬 정책은 1960년대 이후 (대)도시 및 일부 성장잠재력이 있는 거점지역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정책 기조에 의해 섬 지역은 개발의 축에서 벗어나 있었다. 관계 부처의 개별사업 위주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다가 내무부 주관 5개년 단위 계획으로 도서종합개발계획(1973~79년)이 처음 수립되었다.

섬 개발을 위한 법을 제정은 수차례 곡절을 겪다가 1986년에 「도서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988년에 제1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섬발전촉진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정되어 제4차 섬종합 발전계획(2018~27)에 의해 주요 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 작은 모래가 가져온 큰 선물,
📺 '새옹지마'



김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임자도는 모래섬이다. 논이든 밭이든, 심지어 집안에까지 파고들어 마당과 방안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 문을 꼭 닫아도 서그럭 서그럭 거린다.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임자도 큰애기는 모래 서말 먹어야 시집간다’는 말이다.

신안군 임자면은 임자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등 4개의 유인도와 6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숙종 이후 한말까지 영광군에 속했다. 당시 영광군은 27면 2도 557리로 되어 있었다. 2도는 신안 당사도, 사옥도, 병풍도 등 신안 중부 북쪽부터 안마도에 이르는 섬들로 칠산바다를 오롯이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섬을 상제도(13개)와 하제도(19개)로 구분했다. 임자도는 하제도에 속하는데, ‘임자도, 대기, 이흑암, 신기, 도삼리, 장동, 삼두리, 도찬리’가 포함되어 있다. 임자도를 ‘육섬이’라고도 한다. 여섯 개의 섬이 합해져 오늘날 임자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많은 섬이 자연이 쌓은 모래언덕과 인간이 쌓은 제방이 더해져 오늘날 임자도가 탄생했다. 그 시작은 바다가 보내온 작은 모래 알갱이에서 시작되었다.



▲ 하우리와 섬타리가 모래로 이어져 있는 임자도

임자도는 대둔산, 불갑산, 삼각산, 삼학산 등 산을 제외한 낮은 구릉과 해안은 온통 모래밭이다. 섬 서쪽은 큰 파도로 해안에 쌓인 모래에 바람에 날려 낮은 산과 언덕을 연결했다. 덕분에 동쪽에 큰 만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시나브로 개흙이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와 쌓이면서 갯벌을 형성했다. 조선조 목장이 폐지되고, 수군진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개간을 하고 작은 제방을 막아 논을 만들고 소금을 구웠다. 일제강점기에는 미곡수탈을 위해, 근현대에는 국가계획으로 물길을 막았다. 갯벌이 발달한 곳은 천일염전과 농지를 만들고, 모래가 많은 언덕은 일귀 땅콩과 대파를 심었다. 쌀이 귀한 시절에는 쌀과 소금이 임자도 경제를 이끌었다. 지금은 논보다 대파가 잘되는 모래밭이 귀한 대접을 받는다.





▲ 모래에서 재배 되고 있는 임자도 대파

Chapter #01

임자도 대파가 유명한 이유

임자도는 벼농사가 많았다. 이제는 쌀농사로써는 굶고, 대파 농사로 먹고 산다. 그 덕에 천덕꾸러기였던 모래밭이 효자 노릇을 한다. 임자도 대파 재배면적은 신안군 전체 대파 면적의 절반에 이른다. 임자도가 대파 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가 보내온 모래 덕분이다. 대파는 뿌리에서 푸른 잎 사이 하얀 줄기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골을 넓고 깊게 파서 대파를 심고 복을 돌아주어 줄기가 흙에 많이 한다. 모래밭인 임자도는 다른 지역보다 자주 두둑에 흙을 굵어 올리고, 물을 줘야 한다. 모래밭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최상품질의 대파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상인들은 흰 줄기가 길고 굵은 임자도 대파를 좋아한다.

대파를 심고 수확할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임자도에 있는 식당이나 숙소도 만원이다. 대파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며칠을 임자도에서 숙박을 해가며 일을 한다. 임자도 주민보다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고, 외국인노동자도 있다. 대파가 돈이 되면서 일부 논도 슬금슬금 대파밭으로 바뀌고 있다. 모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 대광해수욕장 입구 대형 민어 조형물

Chapter #02

민어와 젓새우는 모래펄을 좋아해

바닷물이 빠지자 하우리와 물타리 사이에 쌓여 있던 모래가 모습을 드러냈다. 많이 빠질 때는 걸어서 섬타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모래해안은 임자도 북서쪽 도천리까지 이어진다. 무려 30리에 이른다. 그 사이에 대광해수욕장도 있다. 대광해수욕장 입구에는 사람이 작아 보일 만큼 큰 생선조형물이 있다. 임자도를 상징하는 민어다. 하우리와 섬타리 사이에 모래밭이 민어파시가 섰던 곳이다.

민어파시가 서는 여름철에는 하우리와 섬 사이에 배로 빼곡하게 들어차 징검다리처럼 건너다녔다고 한다.

모래 해변에는 잡화상, 목욕탕, 음식점, 요리점, 선구상, 병원, 중계업 등 조선인이 운영하는 상점 16개가 세워졌다. 파시가 열리면 주재소가 설치되어 경찰이 상주했다(동아, 1925.8.11.). 민어잡이는 노록도, 갈도, 허사도, 부남도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이곳을 부남군도라고 한다. 모두 임자도에 속한 섬들이다. 부남군도 일대의 바다는 모래갯벌이 발달했다. 적당한 수심도 유지되어 젓새우 등 민어가 좋아하는 먹이도 풍부하다. 여름철이면 산란하기 위해서 민어들이 찾아온다. 임자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민어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다. 또 다른 민어어장으로 인천 굴업도가 있다. 이곳도 한강하구에 형성된 최대 모래 해변과 사구 등이 형성된 지역이며 일찍부터 젓새우가 많이 잡혔던 곳이다. 젓새우와 민어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지만 어민들에게는 둘 다 중요한 어업자원이다. 임자도 전장포에 새우젓이나, 한때 젓새우를 숙성 시켰던 토굴 흔적도 이러한 자연환경이 만들어 낸 생활문화라 할 수 있다.



▲ 1925년 임자도 민어파시 모습



▲ 신안 지도읍 송도위판장 민어

Chapter #03

물러나는 소금밭, 다가오는 모래밭



▲ 임자도 천일염전

남풍이 불고 땅 기운이 올라오면 농부들만 아니라 소금밭을 일구는 염부들도 발걸음이 부산해진다.

천일염전을 만들려면 갯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소금을 만들 때도 갯벌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염이든 천일염이든 갯벌이 없으면 소금을 얻을 수 없다. 초대 지도군수 오형묵이 배를 타고 부임하면서 자염 생산과정을 보고 《지도군총쇄록》에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 길에 있는 임자도에서 자염을 굽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1918년 발행한 지도를 보면, 삼두리, 대흥리 임자초등학교 앞(염전자리), 이흑암리 대섬 안쪽(현 천일염전 운영) 등에 염전 표시가 있다. 이 당시 염전은 모두 가마솥에 함수를 끓여서 소금을 얻었던 자염이다. 이들 염전 중 임자초등학교와 이흑암리 염전은 천일염전으로 바뀌었고, 삼두리는 농지로 바뀌었다. 같은 지도에 병산, 불갑산, 삼학산 산자락 안쪽은 일부 육답을 제외하고 대부분 황지(荒地)로 표기되어 있다. 개답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친 땅이라는 의미다.

장동리, 광산리 일대의 농지와 천일염전이 조성된 것은 그 후 진리(과거 섬이었을 때는 진도라 불리었음) 일대에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이다. 결국 임자도에 천일염전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도 작은 모래에서 시작된 섬이다. 한때 임자도 경계를 이끌었던 천일염전도 시장개방으로 많이 폐전되어 양식장으로 바뀌었고, 남은 염전은 다시 태양광으로 변하고 있다. 모래밭도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땅콩에서 대파로,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승마장으로도 이용한다. 또 신안군에서는 모래언덕에 튼튼을 심어 축제를 개최하고, 매화와 동백을 심어 정원도 마련했다. 모래밭이라 수월치 않지만,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잦은 변신에 모래가 힘들다 하지 않을까.



▲ 18세기 영광군 지도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임자대교 일출을 따라
홍매화가 피어나는 섬으로



▲ 임자대교에서 맞이한 일출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임자대교 사이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른다. 어둠을 걷어내며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고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다리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잔잔한 파도 소리 살랑이는 바람 소리가 섞여 섬이 깨어나는 순간. 그 빛을 따라 섬으로 들어서면, 이맘때쯤 어김없이 홍매화가 피어나는 정원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올해부터 임자도는 홍매화축제를 개최했다.

‘홍매화의 섬’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 신안군의 ‘1섬 1 정원’ 사업으로 조희룡 적거지(만구음관)에 심어진 5만 그루의 홍매화, 1004섬 톨립홍매화정원에 자리한 조선홍매화 645그루와 백매화를 포함해 총 2,70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봄의 시작을 알린다.

걷다 보면 꽃향기가 은은하게 스며들고 가지마다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 아래에서 반짝인다. 살며시 떨어진 꽃잎들은 땅 위에 내려앉아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임자도 홍매화

홍매화는 기다림과 인내의 상징이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이 오면 누구보다도 강렬한 빛깔을 뽐낸다. 유난히 추웠던 계절을 지나 더욱 붉고 단단하게 피어나는 홍매화처럼 임자도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더 아름다운 섬이 되어가고 있다.

조선 시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우봉 조희룡 선생. 그가 홍매화를 사랑한 이유도 어쩌면 그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겨울에도 곳곳이 피어나고 바람에 흔들려도 쉽게 지지 않는 홍매화는 그 강인한 모습이 그의 붓 끝에서 그림으로 남았고 지금 이곳 임자도에서 꽃잎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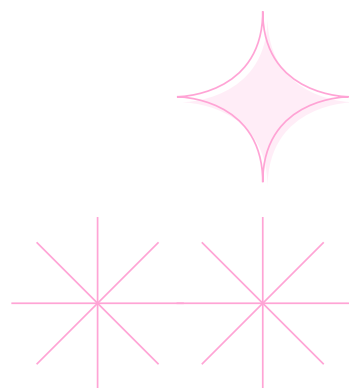


▲ 1004섬 톨립홍매화정원

홍매화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카네이션동백 정원과 토피어리 정원도 만나게 된다. 꽃잎 사이로 머물던 사람들의 발걸음 바람이 스치고 간 자리마다 남겨진 감탄과 머무름의 흔적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시간 속에 스며든다.

임자도에서는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홍매화 아래에서 봄을 만끽하며 잠시 머물고, 바람을 따라 길을 걸으며 온전한 계절을 눈과 마음에 새겨보자. 바람과 함께 피어나는 홍매화처럼 이곳에서의 순간도 천천히 스며들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홍매화의 길을, 당신은 누구와 함께 걷고 싶은가요?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아따! 이번 달 임자도는
☆ 대파로 바쁘당께~ ㄷ



▲ 해풍을 맞고 자란 임자도 대파

임자도의 이른 아침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면 섬사람들의 하루도 함께 깨어납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이 섬을 감싸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대파밭으로 향합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임자도는 온통 대파의 초록 물결로 일렁입니다. 탁 트인 들판 위로 초록빛이 출렁이고 그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들이 하루를 일궈갑니다.



임자도의 대파는 남다른 맛입니다. 촉촉한 윤기가 흐르고 향이 깊고 진하죠. 특히 흰 줄기가 길고 단맛이 강해 전국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덕분에 대파의 조직은 단단하고 아삭하며 씹을수록 은근한 감칠맛이 퍼집니다.

대파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채소로 전해졌습니다. 「동의 보감」과 「본초강목」에서도 감기예방, 면역력강화, 폐 기능 활성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겨울철 임자도 대파 한 단이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욱 깊은 맛을 내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임자도에서는 대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대파테라(대파 카스텔라)’입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개발한 대파테라는 임자도 대파를 건조시켜 곱게 간 뒤 빵 반죽에 섞어 구워냅니다. 진한 대파 향이 부드러운 빵 속에 스며들어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풍미를 자랑하죠. ‘전남 빵지순례’에도 선정된 대파테라는 식재료를 넘어 임자도의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섬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안 임자도
대파테라 빵지순례**

영상정보 : KBC광주방송
신안 여행 가서 선물할만한 빵 추천!
신안 대파테라, 빵지순례



▲ 하나로마트 임자농협본점에서 판매중인 대파테라



▲ 우리의 식탁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임자도 대파들



수확을 마친 대파를 실은 트럭들이 하나둘 섬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길게 이어진 초록빛 들판은 어느새 한결 가벼워졌고 바람은 다시 한 번 발을 스치며 섬을 감쌌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이 계절 임자도는 대파로 특별한 풍경을 그려갑니다.

오늘 저녁 임자도의 대파로 따뜻한 한 끼 어떠신가요?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변을 달리는 말,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

“승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고성호 임자해변승마공원 원장



Q1. 승마공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저는 30대 후반에 고향인 임자도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승마를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제주도에서 말을 타보게 됐는데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고 승마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승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우연히 임자도의 모래해변이 말 타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다가 보이는 넓은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여기뿐이었죠. 그래서 “이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승마공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 임자해변 해변승마대회 개최 기념비

Q2. 해변 승마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자도는 12km 길이의 모래 해변을 가진 국내에서 유일한 섬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래가 너무 깊거나 돌이 많아 승마에 적합하지 않지만 임자도는 모래가 단단하고 경사가 완만해서 말이 달리기에 아주 좋아요. 심지어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죠. 덕분에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누구나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어요. 해변에서 말을 탄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과 함께 걷고 달리는 순간 그 자체가 힐링이죠. 특히, 해 질 녘 석양을 배경으로 말에 올라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3.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승마는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사진을 찍으며 승마의 기본 원리부터 말과의 교감 방법까지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말을 타기 전에 먼저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말의 습성과 승마의 기본 자세 등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 해변에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말을 무서워하던 분들이 시간이



▲ 미니어처말과 친해지기 체험중인 에디터

지나면서 말과 교류하며 편안해지고 마지막에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연중 운영하는 ‘해변 승마 체험’은 매년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유소년 승마단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승마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자해변승마공원 카페 사진 아카이빙

Q4.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승마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승마장을 운영할 때부터 유소년 승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승마가 소년체전 종목에도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를 설득해 유소년 승마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임자도 출신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고 국가대표로 발탁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며 더 많은 아이들이 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5. 승마공원의 미래 계획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글램핑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단순한 승마 체험을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사실 말과 함께하는 시간은 운동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해변산책 코스’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말을 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말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도록요.

Q6. 승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들이 승마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은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과 교감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타는 승마’ 뿐만 아니라 말과 함께 걷고, 만지고,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 많은 분들이 말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자도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에요. 저는 이곳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임자도에 와서 말을 타고 해변을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에디터 이야기

섬에서 사람의 온기를 기록하다

승마는 흔히 ‘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고성호 원장은 그 벽을 허물고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을 타고 자연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건강을 위해 말과 했던 처음의 시작이 지금 그를 임자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승마란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과 함께 걷고 교감하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곳,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승마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전국 최초 ‘해변 지구력 승마 대회’를 개최했고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며 임자도를 더욱 특별한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승마장과 달리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카페와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 승마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많은 대중들의 삶에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변에서 말과 교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치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역 공동체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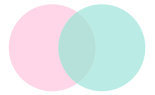
임자도를 단순 관광지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정창일 임자만났네협동조합 대표



Q1.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임자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산물을 가진 곳이지만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섬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임자만났네'라는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Q2. 조합을 통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처음에는 공모사업이 생소했고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사업비를 가져간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점과 행정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3. 임자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알려주세요



▲ 대광해수욕장의 광활한 모래 해변

임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광활한 모래해변입니다. 12km에 이르는 넓은 모래해변은 '한국의 사막'이라 불릴 정도로 장관을 이루며 해산물이 풍부하게 자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새우의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 60%의 새우젓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또한, 5월에는 갑오징어와 꽃게, 황석어, 6월에는 병어, 7월에는 민어가 많이 잡힙니다.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물살이 빠른 편이라 이곳에서 자란 해산물은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자도는 농산물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모래 토양 덕분에 물 빠짐이 좋아 대파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며 이곳에서 자란 대파는 흰 부분이 길고 단맛이 강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톨립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신안 톨립축제가 열리며 천일염과 김 등의 특산물도 임자도를 대표하는 자원입니다.



▲ 신안군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섬 민어, 갯다리 축제 포스터



Q4. 임자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나요?

임자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넓은 갯벌을 활용한 생태탐방, 갯고랑 카약 체험, 해변을 시원하게 달리는 해변 승마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갯통열차와 버기카를 타고 섬을 둘러보며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자도 이야기 체험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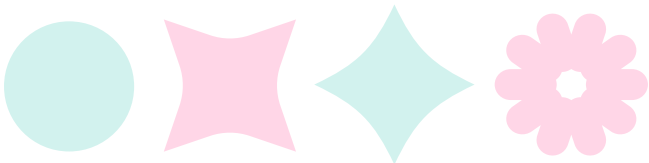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통해 섬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임자도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홍매화축제와 톨립축제가 열리고 여름에는 갯다리(황석어) 민어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문객들에게 임자도만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 임자만났네 협동조합

Q5.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임자만났네’라는 브랜드를 통해 임자도가 널리 알려지고 주민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임자도를 찾는 관광객도 늘었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특히,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와 절기마다 생산되는 특산물이 꾸준히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섬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Q6.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요?

협동조합이 신안군 1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임자도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에디터 이야기

섬에서 사람의 온기를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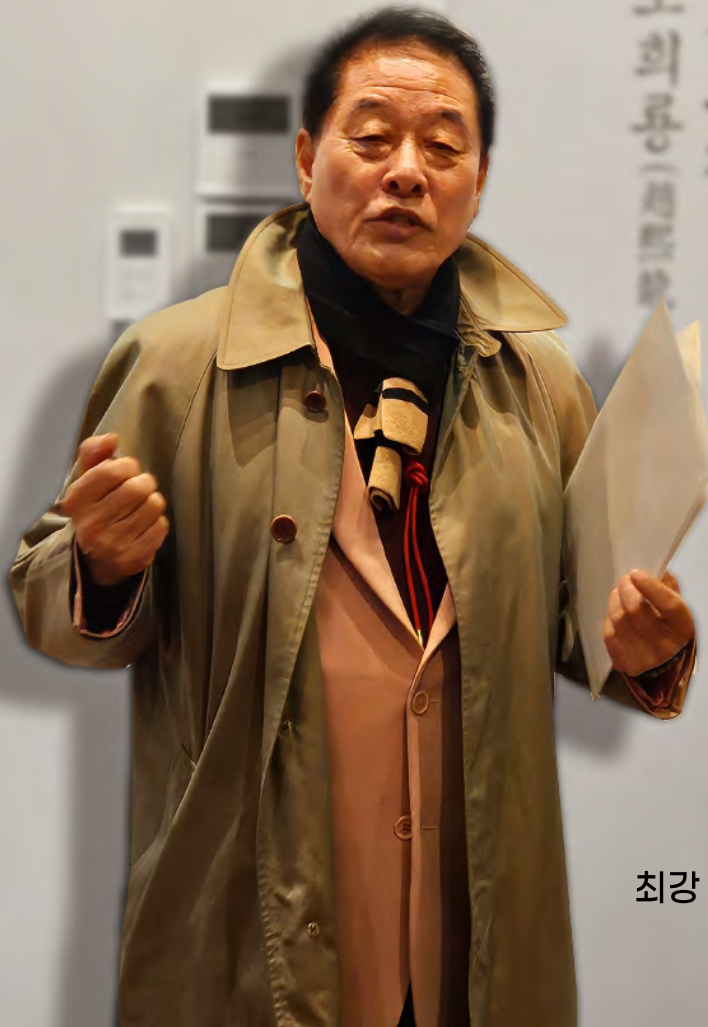
임자도를 향한 깊은 애정에서 시작된 '임자만났네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함께 섬의 가치를 지켜내고 널리 알리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미래를 향한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과 임자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지속성 유지를 하기 위한 그의 노력. 그런 고민이 있었기에 '임자만났네 협동조합'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10년 뒤 '임자만났네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떠올리며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곳. 임자도의 바람처럼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이야기. '임자만났네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그 길이 임자도를 더욱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사람,
임자도의 이야기꾼



최강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Q1. 문화관광해설사가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최근까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주변 분들과 고향인 임자도 이야기를 하면 어디인지 어떤 것이 유명한지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저를 임자도에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임자도에서 만난 분들께 이곳의 매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고 싶고 ‘느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2. 임자도의 역사에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임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봉 조희룡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조희룡 선생은 1851년 왕실 전례 문제로 인해 임자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술 활동을 지속하며 매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셨죠. 그분이 남긴 매화 사랑의 흔적은 지금도 임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화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피어나는 강인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도 임자도의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 중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진리교회'에서 48명의 교인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49인 순교지'로 남아 그들의 신념과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자도의 자연만큼이나 이 섬이 간직한 역사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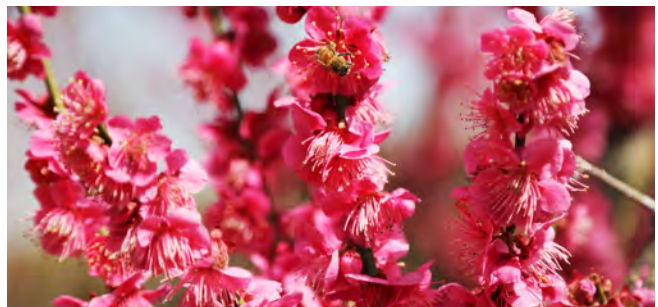


◀ 조희룡, 홍매도(紅梅圖)

63cmx43.1cm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소장품 e뮤지엄



▲ 우봉 조희룡 선생이 사랑한 임자도 홍매화

Q3. 관광객들이 가장 흥미롭게 듣는 이야기가 있나요?

조희룡 선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는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룬 문인화의 대가로, 1851년 예송논쟁에 휘말려 환갑이 넘어 신안 임자도 이흑암리에서 유배 생활을 하여 '만구음관' 오두막을 짓고 살며 매화도를 그렸습니다. 산수와 사군자를 잘 그렸는데 특히 매화에 심취하여 매화병풍을 두르고 매화벼루에 매화 먹을 갈아 매화시를 쓰고 매화차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 '1만 마리의 갈매기들이 우짖는 집'이란 뜻을 지닌 '만구음관'



우봉 조희룡 선생과
매화이야기 보러가기



영상정보
어디든 미술관-조희룡 [매화서옥]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네

Q4. 임자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임자도는 나를 발견하는 ‘느낌의 여행’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 ✓ 별이 좋은 날 조희룡 적거지 '만구음관' 마루에 누워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유배자의 마음을 떠올려보세요.
- ✓ 조희룡 미술관에서 그가 만들어낸 작품의 세계에 빠져 감상해 보세요.
- ✓ 대광해수욕장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멋진 조형물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해변을 걸어보세요. 바다의 넓음과 하늘의 드넓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 ✓ 1004섬 톨립홍매화정원에 방문해 화려한 화려한 정원을 만끽하세요. 이곳은 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 ✓ 지역 음식을 꼭 맛보세요. 계절별 해산물, 영양 솔밥, 대파카스테라 등 임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 김우진 작가의 붉은 말 조형물

Q5.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남도 한 바퀴’라는 전라남도 여행 코스에서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관광객 한 분이 대광해변을 걸으며 해양 쓰레기를 직접 주워 담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많은 것을 주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해설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Q6. 앞으로 임자도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더 알리고 싶으신가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역사 속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섬으로, 임자도를 방문한 많은 분들이 꽃과 나무의 소리,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감동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역시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해설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남는 작은 이야기들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감동과 느낌이 있는 해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에디터 이야기

섬에서 사람의 온기를 기록하다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자도가 품고 있는 시간의 흔적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섬의 이야기꾼’였죠. 끝없이 펼쳐진 대광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걸으며 우봉 조희룡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고 있는 ‘느낌의 여행’이 ‘느낌의 섬’으로 되고 마음속에 있고 있던 감동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임자도 이야기가 오래도록 여행자의 마음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임자도에서 키워져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

종류	기간
대파	1월 ~ 4월
천일염	3월 ~ 10월
양배추	3월 ~ 5월
새우젓	4월 ~ 9월
병어	4월 ~ 5월

종류	기간
깡다리	5월 ~ 6월
마늘	6월
양파	6월 ~ 7월
고추	7월 ~ 10월
민어	7월 ~ 8월
김	11월 ~ 4월

임자도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품은 섬으로 다양한 특산물이 유명합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땅에서 자란 농작물은 물론 임자도에서 생산되는 곱창돌김은 그 독특한 맛과 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햇살이 만들어낸 천일염은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합니다. 수산물, 농작물, 가공품까지 자연의 선물이 가득한 임자도는 풍요로운 섬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임자도를 찾는다면 꼭 들러야 할 신선한 특산물 핫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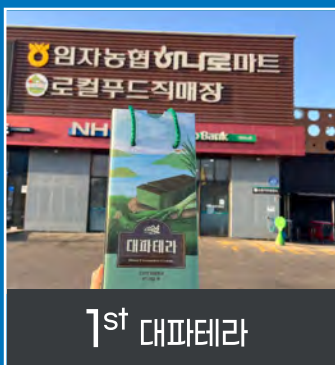
하나로마트 임자농협본점 로컬푸드 매장에서 특별한 먹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역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수산물에 그날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진열되어 믿고 맛볼 수 있는

로컬푸드를 만날 수 있죠. 어떤 맛있는 즐거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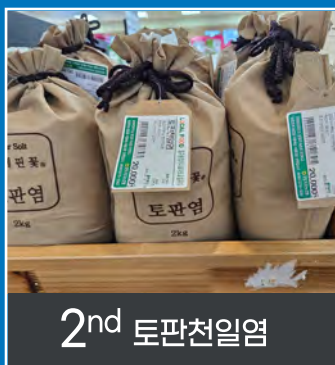
에디터's Pick! 임자도의 로컬푸드 핫템 함께 만나보실까요?

임자도 로컬푸드 에디터's TOP 6



1st 대파테라

뱅지순례 핫템! 임자도 대파의
향긋함이 스며든 특별한 카스텔라



2nd 토판천일염

바닷바람과 햇살이 빚어낸
깊고 진한 풍미의 명품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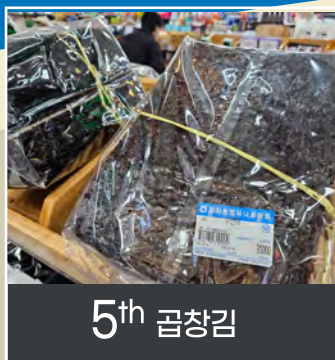
3rd 민어건정

임자도의 바다가 선물한 귀한 생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4th 새우젓

자연 숙성으로 깊은 감칠맛이
살아있는 임자도의 별미



5th 곱창김

바다의 향과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별미 김



6th 대파

탱탱한 조직감과 깊은 단맛이
살아 있는 임자도의 대표 농산물

임자도의 자연이 키운 건강한 로컬푸드,
맛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신안 임자도 투어 가이드

임자도 기본 현황 (2025. 3월 기준)

가구·인구	1,772가구·3,237명
면적·해안선 길이	48.1km·46m
주요 관공서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파출소, 해경 파출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119지역대, 우체국, 초·중·고등학교

임자도 교통정보

임자도는 임자대교를 건너 차량으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섬입니다

01 버스

3004번(임자~목포)											
	임자 (대광)	임자 (진리)	지도 터미널	압해 (중앙)	신안 군청	목포 버스터미널	신안 군청	압해 (중앙)	지도 터미널	임자 (진리)	임자 (대광)
1	07:00	07:25	07:36	07:44	07:59	08:12	08:20	08:31	09:00	09:00	09:00
2	10:30	10:55	11:06	11:14	11:29	11:42	11:50	12:01	12:30	12:30	12:30
3	13:30	13:55	14:06	14:14	14:29	14:42	14:50	15:01	15:30	15:30	15:30

광주~임자(대광)		
광주~임자(대광)	6:45	광주종합버스터미널-진월동-나주-다시-함사거리-무안-현경-망운-해제-자동리-지도-임자(진리)-임자(대광)
	11:40	광주종합버스터미널-함평-무안-현경-망운-해제-지도-임자(진리)-임자(대광)
임자(대광)~광주	9:45	임자(대광)-임자(진리)-지도-해제-망운-현경-무안-함평-광주종합버스터미널
	14:15	임자(대광)-임자(진리)-지도-해제-망운-현경-무안-함평-광주종합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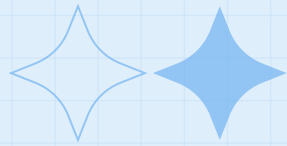
02 택시

전화번호	010-3546-2781	010-3624-6465	010-5389-3355	010-3635-3148
------	---------------	---------------	---------------	---------------



임자도 음식점 정보는
신안맛지도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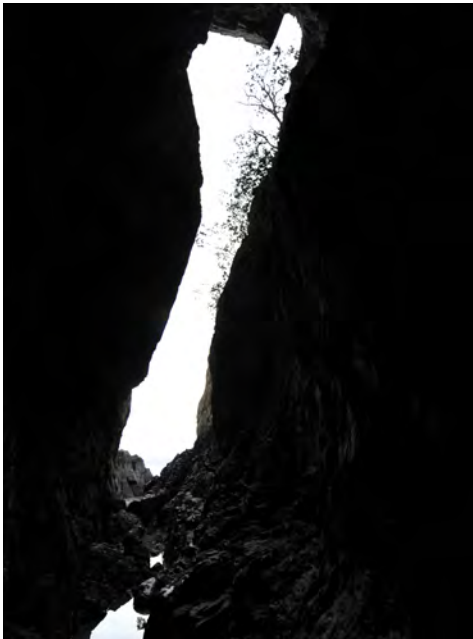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임자대교를 건너
예술과 자연을 만나는 길

임자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섬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산은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임자대교를 건너며 시작되는 임자도의 매력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

Chapter 1



▲ 자연의 손길로 만들어진 용난굴

용난굴 - 자연이 빚은 예술의 공간

임자도의 용난굴은 자연의 손길로 만들어진 독특한 동굴입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이 동굴은 다양한 형상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기이하고 아름답습니다. 동굴 내부에서 섬의 자연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동굴을 따라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경이로운 자연의 소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임자도
물때 확인



여행 TIP

- 용난굴 탐방 전, 물때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 동굴 탐험 후, 근처의 용이승 해변에서 해양 생태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 해변은 수영이나 낚시,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Chapter 2



▲ 백사장이 멋진 대광해수욕장

대광해수욕장해변 - 맑은 바다와 여유로운 시간

임자도의 대표적인 해변으로, 탁 트인 바다와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여름에는 해수욕과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한적하게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맑고 깨끗하여 수영하기 좋고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행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해변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있어 바다를 보며 음료를 마시거나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행 TIP

- 여름에는 해수욕장 주변에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미리 예약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에는 한적한 바다를 감상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대광해변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해변을 걸으며 낙조를 즐기세요.

Chapter 3



▲ 조희룡 적거리의 벽화 풍경

조희룡적거리와 미술관 - 예술과 역사의 만남

임자도의 조희룡적거리와 미술관은 섬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조희룡은 임자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예술가로 그의 작품은 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술관에서는 조희룡의 작품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과 역사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섬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행 TIP

- 미술관 근처에 위치한 조희룡 공원은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공원 내에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미술관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임자도의 예술적 흐름을 체험해보세요.

Chapter 4



▲ 바다의 영양을 품은 전복툇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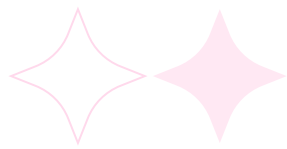
임자도의 맛 -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

임자도에서의 여행은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어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민어탕, 민어회가 유명합니다. 담백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죠. 민어철은 여름인 7월부터 8월 사이로 이 시기에 가장 신선하고 풍미가 뛰어난 민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영양을 가득 담은 전복 툇밥도 현지 식당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입니다. 신선한 전복과 향긋한 툇이 어우러진 전복 툇밥은 고소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일품으로 든든한 한 끼로 제격입니다.

여행 TIP

- 민어탕은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현지에서 바로 잡은 민어로 만든 민어탕을 꼭 경험해보세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 민어회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며,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 전복 툇밥은 바다의 영양을 가득 담은 건강한 한 끼로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툇의 향긋함이 어우러진 별미입니다.

임자도는 예술과 자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현지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여유롭고 따뜻한 임자도에서의 여행은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임자도 어떤 여행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용난굴에서 신비로운 자연을 탐험하고, 대광해변에서 바다의 여유를 만끽하거나, 조희룡의 예술을 감상하며 섬의 역사와 문화에 흠뻑 빠져보세요. 맛있는 해산물과 특산물로 입맛을 채운 후, 임자도만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01 전남도, 일반인 여객선 요금 50% 지원 효과 '톡톡'

전남 섬을 찾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섬 주민의 관광소득 창출과 여객 선사 수익 개선 등 효과

김준성 기자 | 2025. 03. 17.



02 천만 송이 수선화의 대향연...신안 '섬 수선화 축제' 4월 개최

신안군은 오는 4월 4~13일까지 선도에서 '2025 섬 수선화 축제' 개최
14.5ha의 대지에 1000만 송이의 황금빛 수선화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

양진형 기자 | 2025. 03. 17.



03 세계섬박람회 조직위, 32개국 초청 팸투어...협력 다져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아시아, 미주 등 32개국
주한외국공관장,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국 유치 팸투어 환영 만찬 개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해외 참가국 모집과 핵심 콘텐츠 홍보를 위해 마련

김준성 기자 | 2025. 03. 21.



04 한섬원-해운조합, 섬지역 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섬진흥원은 6일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 기대

양진형 기자 | 2025. 03. 06



05 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생물·환경 특화 교육 참가자 모집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생물다양성 감소와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내가 사라져볼게, 얍!', 생물다양성 연구원의 역할을 체험해
보는 '돌연변이와 우리의 미래'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마련

김준성 기자 | 2025. 03. 19



06 국토부장관 "섬박람회 기간 국제선 운항 약속"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을 적극 지원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면서 항공, KTX 등 관광객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윤종은 기자 | 2025. 03. 20.

전남 섬 소식은 **한국섬뉴스** 와 함께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이벤트 기간

3월 31일 ~ 4월 11일

당첨자 발표

4월 14일 개별 문자 안내

김준 박사님의 친필 사인 도서 증정!

신안의 섬들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섬문화 답사기 (신안편)』, 바닷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닷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보아야 하는 『바닷마을 인문학』 이번 이벤트에서는 김준 박사님의 친필 사인본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 01 [시옷] 매거진을 구독해주세요.
- 02 하단 QR코드를 스캔한 후, '신안 임자도판'에 구독자 후기를 작성해주세요.
- 03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남 섬 전문 웹매거진 **'시옷'**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구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자 후기 남기기 ▶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